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산 무안군수

“임기 내 항공산단·도시재생 마무리 무안군, ‘전남의 수도’ 위상 정립”

민선7기 더 큰 무안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김산 무안군수는 ‘대전환 시대 중단없는 무안 발전’을 바라는 9만 군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무안군 민선8기에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도농균형 발전을 균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임기동안 역점적으로 시행해 온 많은 사업들을 연속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항공정비(MRO)를 중심으로 각종 항공관련 기업이 입주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첨단농업복합단지·K푸드유통·합산산업단지 조성, 무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임기 내 마무리함과 동시에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 실현에 나선다.



무안국제공항 전경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첨단 항공정비 중심지로 도약

최근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으며, 활주로 연장과 KTX 노선 경유로 공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무안군은 공항 주변 인프라 확장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등 각종 항공관련 업종이 입주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항공특화산업단지 2023년 준공완료 목표 1000여개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348.9억 투입

항공특화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항공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1000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최근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남아 3개국 6개 노선 운항이 시작되고 김포, 제주노선이 증편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무안국제공항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군은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해 체류형 숙박시설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선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영상강 권역과 해안선 권역 등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 균형있는 도농개발로 원도심·신도시 간 상생 도모

김산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개발을 통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원도심·신도시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8기 군정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낙후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악·오룡신도시는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가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34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을 지역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꿈틀이복합센터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LH행복주택 건립, 집수리 지원 등이 이뤄지고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유치에 속진하는 등 도시 기능을 확대해 ‘전남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기반 구축

현재 무안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44억 원을 투입해 환경면 일원에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의 주요 특산물인 양파 기계화를

적극 추진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 신기술 아열대 작목 육성 등 스마트 농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은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갯벌 낙지, 지주식 김, 감태 등이 유명하다.

그동안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총 8개항이 선정돼 사업비 6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역량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환경·안전·사람 중심의 살기좋은 건강한 도시 조성

무안군은 환경을 우선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숲에 대한 주민들의 녹색 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명품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맛이 치유의 숲, 성동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남악 도청호수 모두누리 열린 숲,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방범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CCTV 영상정

보를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연대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정책 구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 환경면 일원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가시적 성과로 군민 여러분 선택 보답”

김산 군수는 “민선7기 4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쉽없이 달려온 결과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최고의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며 “민선8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약속을 실현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쳐 군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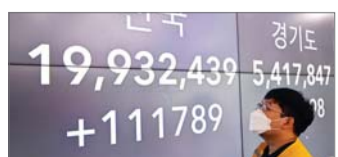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감도



지난달 22일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25회 무안연꽃축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무안군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신규 확진 105일 만에 또 최대...누적 2000만명 넘길 듯 /사진 뉴시스
- ▲ “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경찰, 메신저피싱 조직원 무더기 검거



- ▲ 국민대 동문 비대위 “김건희 논문 재조사 보고서 공개해라” /사진 뉴시스
- ▲ 벌금 못 내서 노력하는 빈곤층에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 ▲ “진로 바뀌어야 할지 고민” 입시생들, 경찰대 개혁 논란에 동요
- ▲ 경찰, 조유나양 부모 살인 혐의 수사 종결...‘극단 선택’ 결론